

청년층 실업 100만명 상회해

일자리가 없어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층이 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침체에다 기업들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대학교육이 낳은 구조적 병리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3만4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은 또 공식적인 실업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업 상태인 취업 준비자가 61만명이라며 이 가운데 80%(48만8000명) 이상이 15~29세라고 추산했다. 게다가 고용동향 조사 기간 중 구직활동은 물론 취업 준비조차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도 22만명이었다. 이른바 청년 백수가 적어도 104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경에 의하면, 청년 백수 백만명 시대를 만들어낸 구조적인 요인은 취업 준비생들의 눈높이와 기업들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은 자기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학원이나 도서관으로 몰려가면서 고시 낭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취업 준비자가 1년 새 무려 16만1000명 늘어났다는 것이 그 증거다. 실업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오히려 2만2000명이나 줄었고 '쉬었음'이라고 말하는 인구가 3만6000명이나 감소했는데도 취업 준비생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70만명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정도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하기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세대가 청년층의 주류로 성장하면서 누구나 대졸자에 어울리는 직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구직과 구인 간 미스매칭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이라고 백번 만들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교육 체제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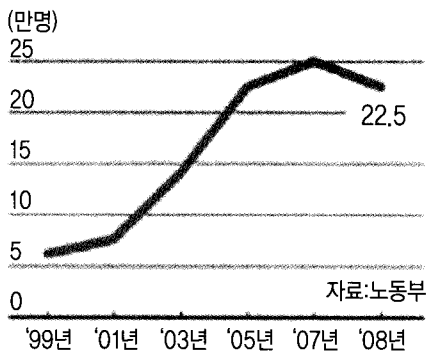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사람을 구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이들 사이에 눈높이가 달라서 생기는 '미스매치(miss match)'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기대하는 임금과 현실임금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4년 대학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의 희망 임금 수준(연봉 기준)은 4년제가 2095만원, 전문대가 1858만원이었다. 반면 현실임금(같은 해 경총 임금 조정 실태조사)은 초임 기준으로 대졸이 1783만원, 전문대졸이 1546만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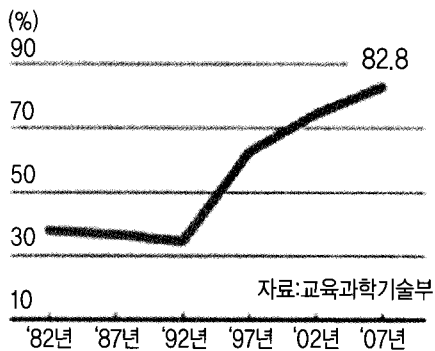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숙련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불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2개 회원사 인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입사원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관련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졸자는 64%, 전문대졸은 6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업계관계자는 청년층이 공직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쾌적한 직장에 입성하기 위해 장기간 부모의 뒷받침을 받으며 백수로 있는 것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치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족 인력



대학진학률



저임금시장은 외국인 점령

대학 진학률의 증가로 고학력 인력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1982년 37.7%에 불과했던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82.8%까지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때 대학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요건만 갖추면 개교할 수 있는 준칙주의로 바뀌면서 대학 수와 정원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직업관이 바뀌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졸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생겼다는 얘기다.

그러나 무조건 젊은이들의 눈높이 탓만 할 게 아니라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문호를 넓히고, 무연고 중국동포에게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늘려 놓은 게 청년층 구직난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정작 청년 백수들이 눈높이를 낮춰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다.

이제는 단순히 정부가 구인구직 정보를 더 찾기 쉽게 해주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의 대학 교육 시스템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실업자

